

영암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 통해 대표 먹거리 확충

빈 상가 활용 먹거리 콘텐츠 발굴
상가 리모델링비용·창업교육 등
장산리푸줏간·촌스토랑 문 열어
미식 관광 활성화 기반 확충

영암군이 빈 상가를 활용해 지역 농특산물로 만드는 먹거리 콘텐츠를 발굴, 미식 관광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28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영암읍에서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 1·2호점이 문을 열었다.

먹거리콘텐츠 육성 종합계획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영암군의 이 프로젝트는 빈 상가를 활용해 영암읍 먹거리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 자영업자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두 업소는 창업 초기 안정 정착과 영암 대표 먹거리 성장 등을 목표로 영암군으로부터 5000만원의 상가 리모델링 비용,

'청년 외식업 창업 아카데미 교육'을 지원받았다.

이날 개점식을 열고 새로 문을 연 음식점은 1호점 '장산리푸줏간'이고, 이달 31일 2호점 '촌스토랑'도 뒤이어 오픈한다.

장산리푸줏간은 신북면 장산리에서 생산된 소고기를 바탕으로 중간 유통비용 없이 한우몰화·생고기·육회비빔밥·차돌된장찌개·한우육개장·육전 등을 판매한다.

촌스토랑은 영암 토마토·대봉감·무화과 등을 식재료로 해산물토마토파스타·어란파스타·라구파스타·가든샐러드·애호박패추리피자·스테이크 등을 선보인다.

영암군은 이번 프로젝트 이외에도 고객 호응도 분석 등 '대표 음식 레시피 개발사업'으로 영암읍 국립관횡집의 보리굴비, 한국관의 떡갈비 개발을 지원하며



영암군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 1·2호점이 문을 열었다.

영암군 제공

영암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단단히 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의 첫 결실인 장산리푸줏간 개점을

축하한다. 개점을 앞둔 촌스토랑과 함께 청년 창업가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영암군 전체를 밝게 비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환경 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목포시, 25종 작업 보호구 지급

목포시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목포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가장 많이 다치는 원인은 종량제 봉투 속 칼이나 유리 조각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베임 사고와 청소차량의 높은 조수석에서의 잦은 승·하차, 청소차량 후미에 매달려 이동할 때의 낙상 위험 등이다.

목포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기능성 장갑, 안전화 등 25종의 작업 보호구를 지급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교육과 몸풀기 동작(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총 15대의 생활쓰레기 차량 중 지난 2019년부터 후방 저장형 청소차량을 도입해 소형 및 예비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저장형 차량으로 운영 중이다.

후방저장형 차량은 운전석과 수거 공간 사이에 별도의 승차 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승차 높이가 낮다. 이에 수시로 차를 오르내리는 환경미화원들의 무릎 등 관절에 부담을 적게 주고 낙상 위험도 적은 게 장점이다.

시는 모든 차량에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위를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Around View)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미화원의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측면에는 안전선위치, 후방에는 안전멈춤바를 장착했다.

구역별 미화원 휴게실 신축, 기존 휴게실 리모델링 등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과 처우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군복지재단이 개최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 가족 음악회'에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난타 공연 등을 선보이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복지재단, 운영시설 가족 음악회

신안군복지재단(이사장 강정희)이 지난 19일 신안군복지재단 잔디운동장에서 운영시설 이용자와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 가족 음악회'를 개최했다.

28일 신안군복지재단에 따르면 신안군공립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원, 1004

보금자리가 연합으로 주관하는 가족음악회는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함께하여 합창, 난타, 하모니카 합주단 등 다양한 공연과 짜장면 나눔 봉사, 가족사진 촬영 인 권경영 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설 이용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김숙희(압해읍)님이 직

접 키워온 다육식물 1000개 기부 전달식도 가져 의미를 더했다.

강정희 재단 이사장은 "처음으로 가족들을 초청해 합동 음악회를 가졌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 좋아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선사해 드린 것 같아 보람있다. 고생하신 봉사자분들, 지원해 주신 신안군과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캠핑 페스타&트레킹 성황 신안군 선도

신안군은 지난 26~27일 양일간 수선화섬 선도에서 열린 캠핑페스타&트레킹 행사가 지역민과 관광객등 200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성료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선도를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파ил릿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26일 첫째 날에는 낚시, 조개잡이, 섬 라이딩, 피크닉 콘서트등 열렸다. 둘째 날에는 대덕산, 범덕산과 섬 일대를 돌아보는 8km 코스의 트레킹 대회가 개최됐다.

그동안 선도는 매년 4월초 10일간 수선화축제가 열려 2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축제가 끝나면 관광객의 발길이 뜸 끊겼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도마을 이장단과 청년회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주민 주도형 행사를 진행했다. 향우회, 주민 가릴 것 없이 합심해 행사비를 마련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 추진을 맡은 박민남 청년회장은 "선도는 수선화 섬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앞으로 꽃 축제와 더불어 사계절 다양한 행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규 지도읍장은 "앞으로는 4월 한달, 10월 한달 간 캠핑과 트레킹 행사를 매주 개최하겠다"며 "섬의 매력을 널리 홍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강진 다산초당 중건 공적비 제막식 정다산유적보존회·군민 헌신 기려

강진군다산박물관(관장 박정식)은 지난 25일, 다산초당 중건 공적비 제막식을 다산박물관 야외공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귀양에서 풀려난 후 폐허가 된 다산초당의 중건 사업을 주도했던 정다산유적보존회와 군민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마련되었

다. 다산초당 중건 공적비는 정다산유적보존회 공적비 추진위원회(위원장 윤관석)의 주관으로 강진군 보조금과 나주정씨 동원공파 종중의 기부금으로 제작되었고, 제막식 행사는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행당택 고향 종중의 지원으로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철 강진군 부군수와 군의원, 지역 주요 인사들과 나주정씨와 해남윤씨 후손 및 정다산유적보존회 발기인 후손들과 주민들이 함께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행사는 다산박물관 1층에서 시작해 야외공원으로 이동 후 공적비 제막식을 가졌다.

이어 윤관석 추진위원장의 공적비 설명으로 다산초당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공헌한 인물들의 노고를 기리고, 강진군의 중요한 역사 유산인 다산초당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던 군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제40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 3개 부문 수상

품질 입증 3년 연속 수상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농가 행사 금지에 따라 비대면 심사(심사위원 현장방문 평가)로 개최된 '제40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전남도 20개 시군을 대표하는 우량한우 72마리를 종합 심사한 결과 강진 한우가 암송아지, 경산우(번식2부, 번식3부)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강진군은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워 강진한우의 품질을 거듭 입증했다.

28일 강진군에 따르면 심사대상 한우는 각 시군에서 혈통우 이상 등록개체로 질병검사 및 친자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개체들만 출품할 수 있으며 외모심사 등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순위가 결정됐다.

출품한 개체 중 경산우(번식암소2부) 부문은 성전면 노양 농가가 '최우수상', 암송아지 부문은 칠량면 김아영 농가와 경산우(번식암소3부) 부문은 성전면 박경훈 농가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번식암소2부 노양 농가의 최우수상 개체는 재심사를 거쳐 전국한우경진대회에도 출품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한우산업을 지역농업분야의 핵심 소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우개량 및 1등급 출현율 향상 관련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량 암소 및

우량 송아지를 집중 선발한 결과 올해 강진 가축시장 거래 송아지 중 으뜸한우 송아지는 일반 송아지보다 평균 70만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고한우(기초·혈통·고등) 등록률이 98.0% 이상으로 전남에서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우개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한우농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1등급 출현율 향상을 위해 추진한 한우산업 시책이 눈에 띄는 성과로 돌아와 뿌듯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강진 한우를 육성하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